광주 상반기 아파트 구매 금융비용 '뚝'

대출 이자액 241만원…2년반 만에 최저

전남도 하락…전국서 감소폭 가장 낮아

광주지역 올해 상반기 아파트 구매 금융비용(대출 이자액)이 2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남 역시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가정한 아파트 구매 대출 이자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 상반기 광주의 아파트 구매 대출 이자액은 241만원으로 직전 작년 하반기의 연 289만원보다 16.6%(48만원) 하락했다.

이는 2016년 하반기 기준 연간 금융비용(218만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광주의 아파트구매 대출 이자액은 2017년도 상반기에 255만원·하반기 277만원, 2018년도 상반기 299만원·하반기 289만원 등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전남 역시 올해 상반기 아파트 구매 금융비용이 감소했다. 경남과 함께 올 상반기 아파트 구매 연간 대출 이자액이 19만원 줄어들면서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금융비용은 작년 하반기보다 급감한 337만3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구매 대출 이자액은 직전인 작년 하반기의 연 437만원보다 22.8%(99만7천원) 하락했다.

이처럼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금융비용이 감소했으며 경기(-95만원), 대구(-79만원), 인천(-59만원), 제주(-59만원) 등의 순으로 아파트 구매 대출 이자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지역에서 금융비용은 연 909만원으로, 작년 하반기(933만원)보다 24만원(2.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서울 집값의 가격 하락 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뜻이다.

지난 상반기 기준 지역별 연간 대출 이자액은 서울(909만원), 경기(370만원), 세종(368만원), 부산(324만원), 대구(312만원), 제주(306만원), 인천(304만원) 등의 순서로 많았다.

권역별로 아파트 구매에 따른 연간 대출 이자액은 수도권에서 지난해 하반기 581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488만원으로, 지방에서 작년 하반기 273만원에서 지난 상반기 231만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2017년 이전 수준으로 금융비용이 줄어든 것이다.

2013년부터 연간 금융비용이 줄어들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금융비용이 늘어나면 상승률이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과 금융비용 감소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6월 기준 연 2.74%로, 2016년 8월 연 2.7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방 최성헌 매니저는 "낮은 금융비용 때문에 자금 유입 차단이 완화하면 시중 자금이 빠르게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현재 매매가격 안정을 위해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자본수익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후성 기자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른다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들 건물의 시가를 지금과 같은 간접적인 평가수단인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해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와인으로 추석 선물하세요! 19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와인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추석을 맞아 와인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추석 대비 30% 늘리고, 미국 나파밸리의 시그니처 브랜드 한정상품을 비롯해 국민 와인 세트, 초저가 와인 세트 등을 판매한다. /연합뉴스

지역 7월 무역수지 9억2천400만달러 흑자

광주 6억6천800만달러·전남 2억5천600만달러

광주·전남지역 7월 무역수지가 9억2천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9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달보다 10.5% 감소한 40억4천900만달러, 수입은 12.9% 감소한 31억2천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과 수입은 각각 8.7%와 5.6%가 감소해 무역수지 기준 47억달러 흑자를 보였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달보다 7.8% 감소한 11억9천900만달러, 수입도 8.2% 감소한 5억3천1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6억6천800만달러 무역흑자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가전제품(7.1%)가 증가하고, 수송장비(0.5%) 반도체(17.4%) 기계류(11.8%) 타이어(13.7%)는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13.2%) 고무(45.8%)는 늘었고, 반도체(20.9%) 가전제품(2.8%) 화공품(17.2%)은 줄었다.

전남지역 7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1.6% 감소한 28억5천만달러, 수입은 13.8% 감소한 25억9천4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2억5천6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7.1%)가 증가했으나, 화공품(12.9%) 석유제품(16.0%) 철강제품(9.7%) 기계류(13.7%)은 감소했다. 수입은 철광(47.3%)은 늘어난 반면 원유(16.8%) 석탄(23.3%) 석유제품(14.3%) 화공품(25.2%)은 줄었다. /박은성 기자

광주시 '청년13(일+삶)통장' 인기몰이

320명 모집에 996명 몰려

광주시의 '청년13(일+삶)통장' 지원 사업이 인기다.

광주시는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청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액의 단기 저축을 지원하는 올해 두 번째 '청년13(일+삶)통장' 참여자를 지난 18일까지 모집한 결과 320명 지원에 996명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13(일+삶)통장'이란 '일(1)하는 청년에게 더 나은 삶(3)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시가 10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의 저축을 마련해주는 통장 사업이다.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청년에게 소액단기 자산형성과 근로·생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청년13(일+삶)통장 지원 대상은 21일 무작위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자는 22일 시 홈페이지에 발표되고, 9월4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통장 배부식과 약정식을 열 예정이다.

시는 청년통장 가입자들의 적립금 관리 등에 그치지 않고, 당당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금융 근로 생활역량 강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고, 자기체험형 지출관리 프로그램(온라인 금융멘토링)을 통해 소비습관을 개선하는 등 금융역량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실시한 '청년13(일+삶)통장' 사업에는 160명 모집에 1천38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두 번째 모집을 실시했다. /최권범 기자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광주노동청, 내달 16일부터

광주고용노동청은 19일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다음달 중에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6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상반기에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요식업을 중심으로 점검했다면 하반기에는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하반기에도 경제·고용여건 등을 감안해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자율시정기간인 사전계도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 스스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 이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 드린다"며 "사전계도기간 이후 현장점검 시에는 위반사항 적발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후성 기자

우체국쇼핑, 우리농산물 추석선물대전

전남지방우정청은 다음달 7일까지 우리 특산물과 생필품을 최대 30% 할인하는 우체국쇼핑 '2019 추석선물대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우체국쇼핑은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 인기상품인 과일·곶감·한과 등 특산물과 생활용품을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우리 지역 특산물인 배·전복·굴비 등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우체국쇼핑 구매고객 중 총 100여명에게는 스타일러, 명절 선물세트 및 우체국쇼핑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우체국쇼핑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쇼핑몰, 모바일 앱 및 우체국콜센터(1588-1300)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다. /임후성 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캠페인
상점 전기요금 줄이는 4가지 방법
① 냉 · 난방 중일 때는 상점 문이 닫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② 개방형 냉장, 냉동 진열장은 비닐 커튼을 설치하여 효율을 높혀보세요.
③ 전자제품과 콘센트, 멀티탭 등을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사용하세요.
④ 영업 종료 후 간판을 꺼두시면 시간당 0.5k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호남최대
쿨링포그 전문기업!
안개핀조경(주)
쿨링포그 시스템은 고압 미세물입자를 분무하여
대기온도를 최대 10℃ 낮춰주는 폭염, 미세먼지
대응 야외냉방장치입니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주변온도를 저감시켜줍니다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음이온이 발생됩니다
문의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53번길 36 | 062.381.3898 | 010.4890.3898 | www.coolfog.kr
안개핀조경 FOG & LANDSCAPE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LH KORAIL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광주광역시동구 광주광역시서구 광주광역시남구 광주광역시북구 광산구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남원시 천안시 함평군 해남군 무안군 완도 단양군 홍성군